

멕시코 총선 결과

□ 멕시코 총선 결과 야당인 제도혁명당(PRI) 압승으로 끝나

- 7월 5일 실시된 총선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집권당인 국민행동당(PAN)이 참패하고 야당인 제도혁명당(PRI)이 압승을 거두면서 의회 다수당으로 급부상함.
- 이번 선거 개표 결과 하원의원 기준 정당별 득표율은 PRI가 36.7%로 가장 높았으며, PAN이 28.0%, 민주혁명당(PRD) 12.2%, 녹색당(PVEM) 6.5%, 노동당(PT) 3.6% 순임.
- 이에 따라 9월 개원하게 될 국회의 정당별 의석수는 하원의석 500석 중 PRI가 237석, PAN 143석, PRD 72석, 녹색당 21석 등임. 참고로 현 국회 정당별 의석수 PAN 206석, PRD 126석, PRI 106석임.
- 또한, 이번 선거 결과는 2012년 대선에서 차기대통령으로 가장 유력시되고 있는 PRI의 Enrique Peña Nieto 현 멕시코 주 주지사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음.
- 한편, 6개 주 주지사 선거에서도 PRI 소속 후보가 5개 주 즉, 기존 3개주(Colima, Campeche, Nuevo Leon) 외에 PAN 소속 2개주(Queretaro, San Luis Potosi)에서 당선되면서 언론사들은 이번 총선은 PRI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고 평가함.

□ 멕시코 국민들, 경제 및 사회불안 대처 미흡한 집권당에 등 돌려

- 사실상 집권당에 대한 중간 평가로 볼 수 있는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깔데론 정부의 경제 실정과 마약, 납치, 강도 등 범죄 증가 등 사회 불안 지속에 대해 집권당에 책임을 묻은 것으로 평가됨.
- 여론조사기관인 Consulta Mitofsk사는 정당별 지지층과 선결과제에 대한 출구조사 결과 PAN 지지층은 남성으로 사회불안 해소, PRI 지지층은 50세 이상의 장노년층으로 경제 활성화를 우선 해결과제로 꼽았으며, PRD 지지층은 저학력 및 저소득 근로자층이었으며 경제 활성화가 최우선과제인 것으로 나타났음.

□ 시장은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 보여

-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, 멕시코 최대 증권사인 Actinver사 관계자는 이번 총선 결과는 결코 시장 우호적인 방향과는 다르며, 향후 6개월 내에 멕시코에 대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언급함.
- 신용평가사들도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는데, S&P는 국회가 여소야대 정국으로 바뀌면서 정부 세입 확대를 위한 세제개혁안 등 깔데론 정부가 추진 중인 계획들이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함.
- Fitch사도 집권당 보유의식 상실로 정부의 세입확대 노력 등 결과적으로 깔데론 정부의 개혁과제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등 향후 멕시코 경제를 부정적으로 평가함.
- 참고로 S&P는 지난 5월 선거결과를 예상하고 멕시코 등급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으며, Fitch도 6개월 전 이미 등급전망을 부정적으로 내린 바 있음.

- 이를 반영하듯 월요일 외환시장에서 페소화에 대한 미 달러화 환율은 13.2520로 전일보다 0.2% 상승했으며, 주식시장도 1.5% 하락한 23,696.06을 기록. 향후 신용평가사들의 멕시코 신용등급 하향 조정 시 시장은 좀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.

□ 집권당의 FTA 확대 및 에너지 관련 산업 개방 추진 더디질 것

- 이번 선거 결과로 다수당을 차지하게 된 PRI는 FTA 확대와 PEMEX 등 에너지 관련 산업 투자 개방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에 있어 현 집권당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 등 여타국가와의 FTA 확대 문제는 의회 내에서의 정치적 타협 여부에 따라 향후 진행 속도와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됨.
- 그러나 경기 침체, 수출 감소, 페소화 환율 상승 등 현 멕시코의 경제 상황에 미루어 볼 때, 집권당의 추진 과제 실현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임.

< 멕시코시티 사무소 제공 >